

사람들에게
희망을

20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FINAL REPORT**

18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폭력예방,
여성인권 증진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미투지원사업
- 수시지원사업
- 여성이안전한세상 만들기지원사업
- 성평등문화정책포럼

여성임파워먼트



여성NGO와 활동가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 변화를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 짧은여행긴호흡
-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 봄빛장학사업
- 공간문화개선사업

여성기본인권보장



소외계층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지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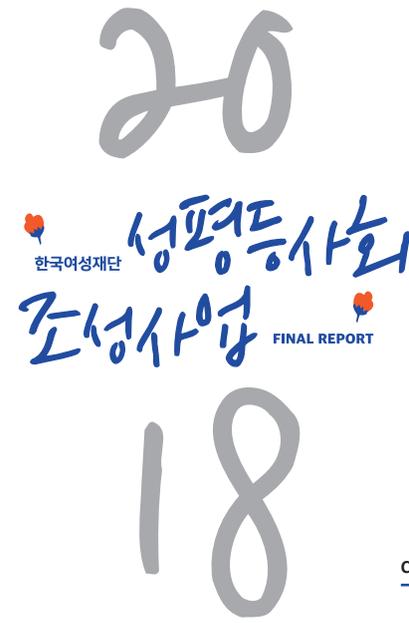
- 엄마에게희망을
- 최명숙기금지원사업
- 맘업프로젝트
- 위드맘프로젝트
- YK청소녀생리대 지원사업
- 여성장애인모성보호 지원사업

다양성 존중 및 돌봄사회 지원



미래 세대와 함께
대안적 경제 생활 문화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베트남다문화아동 외가방문지원사업
- 캄보디아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
- 다문화여성경제적 자립지원사업
- 고사리손기금지원사업
- 하모니프로젝트



CONTENTS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소개	04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	
경남여성단체연합	08
문화기획달	0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0
언니네트워크	11
여성환경연대	12
일다	13
줌마네	14
한국여성단체연합	15
장애여성공감	16
한국여성의전화	17
여성운동 활성화와 연대	
BOSHU	20
BRIDGE	21
범페미니네트워크	22
한국여성단체연합	23
전북여성단체연합	24
한국여성의전화	2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6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시급한 과제와 우리 사회 주요한 여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

총 210,870,000원

(1년) 지원사업

단체명/사업명	지원금(원)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 페미! 일.단.만.나!	25,250,000
문화기획달 농촌×페미니즘+남성 '회오리와 친구들'	25,250,00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보라> 디지털화 사업	20,000,000
언니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스포츠: 2018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10,000,000
여성환경연대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 플랫폼을 위한 담론개발과 대중화	25,250,000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7,620,000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 여자들의 일 경험 되살리기/기록하기	25,250,000
한국여성단체연합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담론 확산 및 입법 방안 검토	25,250,000

(2년) 지원사업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17,000,000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30,000,000

한 눈에 보는
2018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17개 단체



총 244,113,350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총 15,000,000원

단체명/사업명	지원금(원)
BOSHU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5,000,000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5,000,000
범페미니네트워크 전국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강화사업	5,000,000

수시지원사업

총 18,243,350원



단체명/사업명	지원금(원)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	5,000,000
전북여성단체연합 #미투(MeToo)를 너머 #위드유(WithYou) 성평등한 사회로	3,243,350
한국여성의전화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미투로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5,000,00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미투 퍼포먼스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5,000,000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

한국여성재단은,

일상의 성차별 문화 개선부터
지역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익식 확장,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 재생산권 연구 등
총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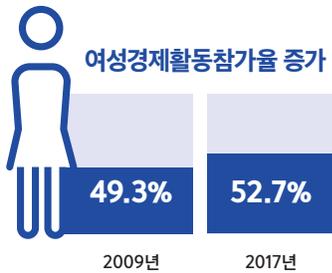
- 경남 페미! 일.단.만.나! | 경남여성단체연합
- 농촌*페미니즘+남성 '회오리와 친구들' | 문화기획달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보라> 디지털화 사업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모두를 위한 스포츠: 2018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 언니네트워크
-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 플랫폼을 위한 담론개발과 대중화 | 여성환경연대
-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 일다
-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 여자들의 일 경험 되살리기/기록하기 | 줌마네
-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담론 확산 및 입법 방안 검토 | 한국여성단체연합
-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 장애여성공감
-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 한국여성의전화

어디 있나요
성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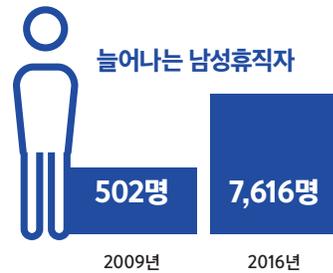
성차별 여전한 존재감

성차별, 아직도 존재하나요? 사라진 것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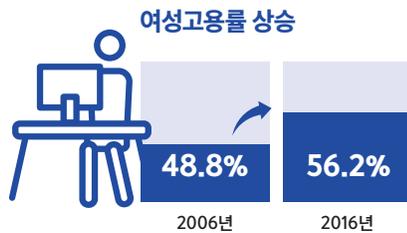
여기 있습니다
성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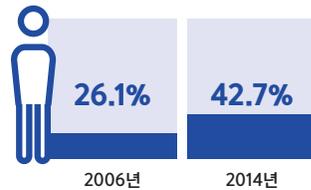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OECD 고용 지표」,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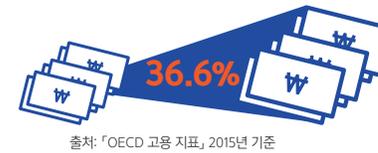


가사분담은 공평하게 집안일 분담에 대한 남성의 '공평분담' 응답 비율



출처: 한겨레신문, 2015. 12. 07

줄어들지 않는 성별임금격차



OECD 최하위 유리천장지수



100점 만점으로 각국의
여성고용 환경을
환산한 점수

출처: 이코노미스트, 2017년 기준



성별 하루 평균 가사노동(맞벌이부부)

출처: 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 페미! 일.단.만.나!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48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남지역은 여성운동의 성공경험이 낮은 곳이지만 #MeToo운동으로 연대하여 젠더폭력, 성차별 등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고발하고, 교육, 정책, 사법권 등 모든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목소리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남지역의 여성운동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 윤소영 사무처장

사업대상

경남지역 여성활동가 및 일반시민
1,0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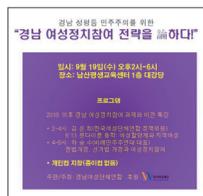


경남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이 연대하여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다



- 경남지역 여성활동가 및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의정/행정 모니터링 사전 아카데미(6회), 예산감시 아카데미(7회), 정치 아카데미(7회), 페미니즘 아카데미(4회) 운영
- 경남지역 여성정책, 성인지 예산, 여성정치 참여 현황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 연구위원, 경남지역 여성운동단체 활동가 및 회원, 각 주제에 관심있는 경남도민 60명

'성평등한 경남'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 활동의 틀을 만든다



- 경남여성단체연합
 - 기초의회 의정활동, 행정을 성인지 관점으로 모니터링하여 성평등 정책변화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김해여성의 전화
 - 김해지역 여성정책, 여성분야 예산을 김해여성의 주체로서 감시와 참여 실천활동
- 진주여성민우회
 - 경남여성의 주체적 정치참여 확대와 생활 정치의식 고취
- 창원여성살림공동체
 - 경남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페미니즘 소모임 조직과 성장을 위한 지원활동
 - 페미니즘 소모임 '메두사의 웃음'에서 2019년 3월 책을 발간 예정

문화기획달

농촌×페미니즘+남성 '회오리와 친구들'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48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남성문화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고 해결을 모색할까에 더 집중했다. 처음 마을에서 페미니즘 활동에 적대감을 보였던 남성들까지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 모임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그룹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깨닫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그런 하나 하나의 과정이 우리 여성 자신을 지역사회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같이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권명심 활동가

사업대상

지역주민 및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시민
6,331명



농촌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다



- 산내폐친 성수다
 - 매월 페미니즘 세미나와 교육, 마을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 토론
 - 남성으로서 '성'과 페미니즘 이슈에 관한 생각과 고민 나눔, 일상의 실천방안 모색
 - 참여자들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주제 자료 선정
 - 지역 내 페미니즘 교육 활동 참여
 - 12회 모임과 4회 워크숍을 진행
- 남성×페미니즘 오픈특강
 - 남성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시민 120명 참석
- 찾아가는 토크쇼 '너도 폐친할래?'
 - 사업에 참여한 남성들과 농촌지역에 방문 페미니즘 모임과 활동 알릴 농촌지역 주민 60명

농촌비혼여성입니다. 그래서요?



- 산내폐친 성수다를 보고 외부에서 자극받아 다른 지역에 전파된 사례
 - 닷페이스라는 영상매체, 서울의 성미산학교에서 문화기획달에 탐방을 왔다가 그 지역에서 새로운 남성 페미니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산청과 남원시내 옥천에 찾아가던 강의와 토론이 성차별과 성폭력 이슈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음
- 농촌×페미니즘 캠페인 '회오리'를 통해 제작한 콘텐츠와 1호 소식지 발행
 - 캠페인 동영상은 '농촌비혼여성'을 주제로 일상에서 벌어진 성차별, 성희롱 사례를 담아 제작하고 마을 연극모임과 산내폐친 멤버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자료로 활용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보라> 디지털화 사업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38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비아 타마킨 감독의 <날을 권리, 날치 않을 권리>는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라는 사회적 움직임과 맞물리며 전회차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영화제 기간동안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던 관객들의 재상영 요청이 SNS를 통해 들어왔고, 해당 영화 관련 포스팅에 '좋아요' 및 '공유' 수치가 가장 높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아카이브 보라>에서는 한국여성재단 기금을 통해 아카이빙 했고 관람을 원하는 이들에게 한글자막이 입혀진 작품을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 박은민 교육사업팀장

사업대상

여성영화에 관심있는 시민들
약 9,700여 명



<아카이브 보라> 상영 포맷 고화질 디지털화를 통해 여성영화 관람 환경 개선하다



- <아카이브 보라>의 기존 작품 중 13편의 작품을 엄선하여 극장에서 좋은 화질로 상영할 수 있도록 DCP 포맷으로 변환, 극장 상영이 아닌 공동체 상영을 위한 고화질 파일 확보
- <아카이브 보라>의 전용 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해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태블릿 PC 등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현
-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VIMEO'를 이용해 작품을 시사회할 수 있도록 프리뷰 영상을 제작, 편집하여 총 192편의 작품 업로드

여성영화 검색 및 선정의 접근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다



- <아카이브 보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www.archivebora.or.kr
-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화제작을 영화제 기간에 미처 관람하지 못한 관객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 약 320여 편 작품 검색 및 작품별 시놉시스, 스틸컷 트레일러, 감독 소개 등 작품별 상세 내용을 확인
- <아카이브 보라> 전작 160여 편 시사용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언니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스포츠 2018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19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퀴어/여성이 모여 함께 코트 위를 뛰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생애 처음이기도 했다. 그 코트 위에선 정말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아무 상관없었다.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존재들이 자신의 몸과 운동에 대한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그 걸 지켜보는 모두가 편견없이 그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스포츠의 힘'이었다.

- 3:3 농구 참가팀 후기

사업대상

20~40대 여성, 성소수자
1,000여 명



여성/성소수자가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체육활동을 하다



- 퀴어여성 게임즈 기획단 구성(10명)
 - 여성주의 활동가, 생활체육 트레이너, 중고교 선수생활 경험자, 디자이너, 마케터, 변호사, 다큐멘터리 감독 등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기획단의 협업
- 성평등한 스포츠 캠페인
 - Sports for Everyone, Sports for LGBTQ+ 캠페인
 - 2018 퀴어여성 게임즈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
 - 여성마라톤 대회 캠페인(오프라인), 오마이뉴스 기획기사 연재
 - 여성/성소수자의 체육 경험,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운동선수 이야기, 페미니스트 트레이너 이야기 등 연재 등
- 퀴어여성 생활체육인 개회
 - 2018 퀴어여성 게임즈 <풋살 친선경기>, 20여 명 참가
 - 2018 퀴어여성 게임즈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315명 참가
- 여성/성수자 생활체육인 네트워크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룹별 토론회, 퀴어여성 게임즈 열문열담
 - 생활체육 동호회 소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 여성/성소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영상으로 기록, 캠페인 활용
 - 스포츠가 특정한 신체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
 - 영상과 기획기사 연재를 활용하여, 성평등한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 독려
 - 스포츠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성소수자의 삶을 가시화함

여성환경연대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 플랫폼을 위한 담론개발과 대중화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48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바탕에는 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으며 자연에 대한 지배와 여성에 대한 지배는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나의 고민과 에코페미니즘의 방향성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이기에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인간이기에 종차별과 동물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에코페미니즘에서 그 접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더 공부해보려고 한다. - 에코페미니즘 학교 참가자 후기

사업대상
일반시민
1,500여 명



마을 공동체와 함께 '모든 몸을 위한 존중'을 이야기하다



- 에코페미니즘 학교 신설 '탈성장 담론과 몸 정치학,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 에코페미니즘 담론 확산에 기여(기획단 10명/참가자 250여 명(누적 1,050명))
 - 세대/지역별 기획을 통한 에코페미니즘 이슈 발굴 및 실천적 대안 제시
- 에코페미니즘 세대별 포럼-'달과 나무'
 - 포럼 정례화: 격월에서 매월 진행을 통한 끈끈한 전문가 그룹 네트워킹 형성
 -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한 에코페미니즘 담론 형성
 - 에코페미니즘 학교/컴퍼런스 연계를 통한 담론의 대중적인 확산을 높임
 - 9회 포럼, 누적 참가인원 250명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가 필요하다



- 에코페미니즘 컴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 대중적 참여(참가자 200여 명) 조직을 통한 에코페미니즘의 대중적 확장에 기여
 - 활발한 콘텐츠(카드뉴스/기고/동영상 등) 생산으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임
- 2030 에코페미니즘 소책자 발간 '에코페미니즘: 상상하고, 질문하다'
 - 2030 에코페미니즘 학교와 연계를 통한 2030세대 네트워킹 역량 강화
 - 에코페미니즘을 통한 청년세대 정체분석과 운동의 방향성 제시

일다

여성의 섹슈얼리티 담론을 확장하라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14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다>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디에도 소통할 수 없었던 갑갑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임파워먼트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 참여자들의 메시지에 큰 힘을 받았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주여성들, 인터섹스와 트랜젠 퍼포머 등 소외되고 묻혀있던 주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에 와 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 조이여울 기획위원

사업대상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여성(세대, 지역별)
27명



여성의 경험으로, 여성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 '여성의 다양한 섹슈얼리티' 20인의 기록과 공유
 - 다양한 세대 여성들이 말하는 섹슈얼리티 경험과 가치관에 관한 기록 20편 작성
 - 기록물 <일다> 내 연재 및 기사화
 - 기록물 10편, 영문 번역본 <일다> 영문사이트 게재



섹슈얼리티는 단일하지 않다!



- 한국 문화의 성차별성 드러내기!
 - 섹슈얼리티 지도를 만들어 발견한 것들 | 섹스, 영원한 타자와의 대화 "숫 컷? 왜 했어!"
 -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 담론
그러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 '인터섹스'로서 느끼는 내 존재의 무게 내가 드랙을 하는 이유 | '동등한 바이섹슈얼'인 나를 긍정하기
 - 여성과 모성의 재구성 시도
'엄마 되지 않기'를 선택한 나?! | 이주여성은 '아이 낳는 사람'이 아닙니다
 - 월경 다르게 보기
'생리'하는 몸이 알려주는 것들 | 월경에 '안녕'을 선언하기까지
 - 사랑과 성
섹스하는 십대여성이 듣게 되는 말 | 노년에 접어든 여성의 '사랑과 섹스 예찬'
사랑은 무엇도 해치지 않으니까 | '정상연대' 밖에서 관계와 사랑을 고민하다
'밝히는 여자'임을 밝히는 것 | 연애까지 노오오오려해야 돼?

줌마네

함께 만드는 대안 이력서 여자들의 일 경험 되살리기/ 기록하기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48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차츰 글쓰기에 몰입하며 일 경험과 기억들을 글에 녹여내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는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모두들 진지했다.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다가, 가끔 누군가 눈물을 터뜨리면 가만히 기다려 주기도 했다. 글은 옆 사람,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 감정의 공명을 만들고, 글은 한 개인이 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 김혜정 기획팀



사업대상
대한민국 여성
14명



함께 만드는 대안이력서



- 여성들의 일 경험 기록/공유 커리큘럼 개발 및 워크숍 실행
 - 기획 및 실행회의 20회, 5인/패널발굴회의 5회, 10인/평가회의 2회
 - <줌마네 자기기록 워크숍-나를 구성해온 일들의 기록> 커리큘럼 개발
 - 워크숍 총 2시즌, 20강:
 - <시즌 1: 글쓰기 워크숍, 시즌 2: 영상제작 워크숍, 참가자 MT>

나를 구성하는 일들의 기록



- 여성들의 일 경험 책 발간
 -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쓴 프로필(대안이력서)
 - 비가시화된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들의 일 경험을 의미화하며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잠재능력 발견 계기 마련
 - 마네 <사십사>, 박옥기 <기억하고 기록하다>, 민들레 <나를 위한 나의 이야기>, 박민선 <마흔넷, 다시 봄날>, 수 <마흔네 살>, 한발짝 <그때의 일들과 지금의 기억들>, 한알 <알맹이는 쏙 빼고 쓴 내 이야기>, 절미 <뭐 어때>, 김나영 <내가 나를 바라보다>, 엄준영 <인생2막? 아니 3막?>, 이주영 <앨범 없는 음악가>, 지네 <바람기억>, 배종숙 <다시 그 여자>
- 에세이 다큐 “여덟 개의 이야기”
 - 여성의 다양한 일 경험과 생각들을 담은 에세이 낭독에 영상을 결합
 - 여성들의 다채로운 시선과 시도를 통한 여성의 고정관념 탈피
 - 절미 <톡톡 털어버리기로 했다>, 수 <3천 번의 클릭>, 민들레 <파워워킹 1, 2>, 봄날 <선물>, 소 <검색왕>, 마네 <똥 빈 오후>, 럭비공 <You Raise Me Up>

한국여성단체연합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담론 확산 및 입법 방안 검토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48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인권이라는 개념은 지향할 가치 중심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건의 총체이고 그 과정은 치열하다. 여성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의 모든 법·제도는 여성이라는 주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의 재생산 건강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박은주 활동가



사업대상
지역활동가, 일반시민
500명



여성의 몸은 언제쯤 '출산 도구'에서 벗어날까



- 낙태죄 폐지 이후 제·개정이 필요한 재생산권 관련 법안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
 - 기획회의 2회, 내·외부 전문가그룹 및 활동가 등 전문가회의(TF) 5회
 - 1박 2일 워크숍 1회
- 낙태죄 폐지 및 재생산권 담론의 지역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지역활동가 및 일반시민 대상 캠페인 8회 (광주, 대전, 창원, 제주, 전주, 경주, 파주, 부산)
 - 영화 상영 및 낙태죄 폐지 타임 강의, 토론 진행
 - 재생산권 자료집, 카드뉴스 제작, 홍보
- 재생산권 관련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위한 토론회
 - 여성활동가들과 집담회 2회
 - 전문가 및 활동가, 일반시민 대상 토론회 2회

낙태죄 폐지를 넘어 '재생산권'을 요구하다



- 낙태죄 폐지 담론의 틀을 '재생산권'의 통합적·포괄적 관점으로 전환
 -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향상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의 틀 마련
- 재생산권 관점으로 현행의 법, 제도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 강조
-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사회적 인식 토대 마련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피해경험 재해석, 다른 삶의 전략 만들기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323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무시와 차별의 근원은 어디일까? 질문을 던졌던 지난 일 년의 시간들, 장애여성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쁜건 좋은 건건 잘못된 출발점이다. 상담 또한 그러하다. 질문하지 않고 상대의 경험과 시간 그리고 답변을 의심한다면 상담은 그저 나 혼자만의 상담이 되어 버린다. '적극적으로 질문할 것!' 지난 일 년간 상담을 진행하며 겪었던 가장 큰 변화이다.

- 장은희 활동지원팀장



사업대상
성인 장애여성
203명



장애여성의 일상적 차별과 인권침해 개념의 확대와 재구성



- 차별, 인권침해, 폭력 경험한 장애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62건
- 동료상담 네트워크 모임 운영
 - 지체장애여성 1그룹 16회, 발달장애여성 2그룹 9회, 총 25회 진행
- 개별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당사자 그룹, 기관종사자 그룹, 조력자 그룹) 인터뷰 실시
- 장애여성 인권상담 공개 간담회 1회 개최
- 장애여성 확대·인권 침해 경험연구 자료집 발간

장애여성의 일상을 지지하라!



- 기획상담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장애여성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지원
- 상담과 지원 과정을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닌 인권활동으로 확장
- 발달장애여성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권 의식 함양
- 인권침해/폭력 경험을 가진 장애여성들이 서로 간에 동료 지지적 관계 형성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 보급 및 여성문화 인력 육성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571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성을 주제로 다양한 얘기가 오갔다. '여성'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과연 내 앞의 상대를 젠더 질서를 전제로 한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들이었다. 이런 주제를 통해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의 연대가 더욱 돈독해짐을 느끼게 됐다.

- 김은총 인권문화국부장



사업대상
일반시민 및 여성문화인
1,364명



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 우리 동네에서 무료로 보자!



- 여성인권영화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계약 34편(기증 20편, 구입 14편)
 - 국내 배급되지 않은 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 아카이빙을 통한 여성주의 콘텐츠 보급 기반 마련
- 여성인권영화 정기상영 및 이동상영회
 - 국내 출품작 중 20편 선정, 관객 수 149명
 - 여성인권영화제 인기작 다시 보기 관객 수 250명
 - 이동상영회 26개 기관 613명
 - 문화콘텐츠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공동체 및 전국 기관에 여성주의 콘텐츠 보급
- 여성인권영화제 씨네토크
 - 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 4편 상영 및 씨네토크
 - 일반시민 및 국내외 전문가 135명 참석

여성의 눈으로 보고, 여성의 언어로 글쓰기!



- 여성주의 글쓰기 교육
 - 여성주의 글쓰기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대상 교육 (신청자 302명 중 선착순 70명 선정)
 - 여성주의의 눈으로 '팩트' 읽기/'생각하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어떤 글을 쓸 것인가
 - '수집'에서 '서사'로: 인터뷰 글쓰기/'보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영화 평론 쓰기
 - 20~30대 여성 및 현직 글쓰기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여성주의 콘텐츠 생산 기회 마련
 - 여성인권영화제 기자단 활동 11명
- 여성주의 영상번역가 양성 교육
 - 기본과정, 총 4강 진행(지원자 59명 중 23명 선정 및 참여)
 - 심화과정 전문가 워크샵(21명 참여)
 - 국내 전문한 여성주의 번역가 교육을 통한 여성주의 번역의 논의의 장 개척
 - 여성인권영화제 번역활동 참여 희망자 18명

여성운동 활성화와 연대

한국여성재단은,

새롭게 등장하는 차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주의 확산, 여성운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 BOSHU
- 특명, 언니를 찾아랏! | BRIDGE
- 전국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강화사업 | 범페미니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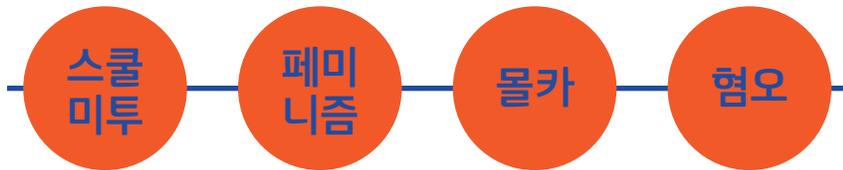
또한,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MeToo 이슈를 중심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4개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 | 한국여성단체연합
- #미투(MeToo)를 너머 #위드유(WithYou) 성평등한 사회로 | 전북여성단체연합
-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미투로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 한국여성의전화
- 미투 퍼포먼스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출처: BBC, 2018. 12. 31

2018 미투가 남긴 여성 인권과 젠더 이슈의 주목!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4개의 키워드



페미니즘 공론화의 시작, #미투, #MeToo!

-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폭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던 고은 시인, 연극계의 대부로 불리던 이윤택 감독,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미투운동!
- 문화계, 정치계에 이어 번진 '스쿨미투'
- '홍대 몰카 사건' 등 성 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열린 해화역 시위!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집회, '탈코르셋' 운동 전개

페미니즘의 공론화가 불러온 인식 변화!

-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변화
- 미투운동 이후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은 3,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3% 증가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자,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고센터' 신설, 교육부 '스쿨미투' 관련 신고센터 개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대책을 위한 법제화

-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공무원 성폭력 범죄의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미투법률> 공포!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피구금자 간음죄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피구금자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사진출처: BBC, 2018. 12. 31



사진출처: 여성신문 2018. 12. 21

BOSHU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9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의 20~30대 페미니스트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만나다 하더라도 페미니즘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책 읽기 모임이나 그나마도 얼마 없는 이론 강의를 들으러 찾아다녀야 했고, 만남 역시 일회적이었습니다. <FC우먼스플레이> 여성주의 축구팀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할 페미니스트 동료도 만나고, 여성의 몸과 페미니즘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FC우먼스플레이의 성과는 참가자 간 강력하게 형성된 결속력입니다. - 서한나 편집장



사업대상
대전지역 20~30대 여성
4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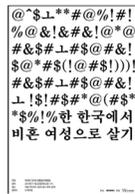


운동하는 여자들, 스포츠 젠더 편견을 깨다



- <FC우먼스플레이> 여성 축구팀을 만든다
 - 2018년 2월 FC우먼스플레이 대전팀 개설, 70명 참여
 - FC우먼스플레이 서울 원데이 클래스, 40명 참여
 - '여성의 스포츠' 사진 전시회 공동 참여
- 페미운동회에 모이다
 - 동분서주 여성 운동회, 40명 참여
- 페미스포츠 원데이 클래스
 - 주지수 '힘은 변하다 그러나 상황은 뒤집힌다' 후속 모임 '오버셋' 운영, 25명 참여
 - 연기 클래스 '페미활극', 15명 참여
 - "한계를 가진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또 하고 싶어! 맨날 연기하고 싶어!"

여성의 몸,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 여성주의 강연
 - '정상이라는 이름의 환상', 40명 참여
 - '대학에서 계속 페미니스트로 살기', 200명 참여
 - '*#\$@(#\$(@한 한국에서 비혼여성으로 살기', 50명 참여
 - "연대감으로 버티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남기!"
- 여성주의 동아리 모여라
 - 충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 시작

[BOSHU] 보슈는 '보라'는 말의 충청도 방언입니다. 전국적인 페미니즘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몸'을 테마로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여 영영페미니스트들이 서로를 만남과 동시에 페미니즘을 일상에서 만나는 법을 보다 다양하게 모색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BOSHU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9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의 대학여성운동 역사복원 프로젝트팀 BRIDGE. 우리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1년간의 타임라인을 완성했으며, 1987년부터 2003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모든 해의 활동가 30명을 인터뷰 해냈다. 그리하여 기록되지 않아서 잊혀진 소중한 부산대에서 여성운동을 기록했다. 이 작업으로 우리 팀원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시작할 때만 해도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지 자책과 불안함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으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게 됐다. - 임봉 팀원



사업대상
부산지역 전현직 대학 여성운동가
300명



응답하라, 부산지역 대학 여성운동 활동가 언니들을 찾아서



- 언니가 간다
 -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20년간의 타임라인 만들기
 - 부산지역 대학 여성운동가 70여 명 전화와 개별 만남
- 기억과 복원
 - 1987년~2003년 대학 여성활동가 30명 심층 인터뷰
 - <우리가 있었다-1985~2005, 부산대 여성운동의 기록> 자료집 발간

연결하기, 부산지역 대학 여성운동 네트워크의 부활



- 부산대 성평등네트워크 심포지엄
 - "시대를 넘어, 페미니스트 만나다" 주제로 개최, 100여 명 참여
 - 부산대학 내 여성운동 조명 토론
- 세대 간 연대 활동
 - 부산대학 여성주의 그룹 간담회 2회
 - 대학 미투집회 연대 1회
 - 부산 미투집회 5회
 - 전/현직 대학 여성주의 활동가, 대학생 등 250여 명 참여
- '페미동창회' 조직으로 네트워크 이어가기 모색

[BRIDGE] 부산의 대학 여성운동의 역사를 복원하여 세 세대와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대학 여성운동의 성장을 돕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990년대 대학 여성운동의 주역들을 찾아 여성운동의 현장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대학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치유와 자존감 회복, 그리고 세대 간 소통과 연대로 여성운동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범페미니네트워크

전국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강화사업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9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차게 시작한 전국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강화사업이었지만 1년 안에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전국 순회포럼을 진행하면서는 각각의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와 활동가로서 대중적인 생각과 액션을 고민하는 역량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240명 페미니스트들이 생경했던 페미니즘 이슈들에 대해 알아가고 교차지점을 배웠으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이 긴밀하거나 민첩하기 못하더라도 서로를 지탱하는 심적 연대의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가현 활동가

사업대상
전국의 페미니스트
235명



횡단하는 페미니스트들



- 전국 순회포럼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페미니즘 주제를 '정치라는 큰 틀로 묶은 토론회'
 - 임신중단합법화, 월경평등권, 영화계내 성폭력, 학교 안 페미니즘
 - 서울, 대구, 부산 페미니스트 133명 참여
- 전국강연사업
 -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요청 주제 맞는 페미니즘 강연, 92명 참여
 - <하나님은 페미니스트를 사랑하십니다> 서울 강연회
 - <페미들의 성교육> 광주, 대구, 대전 강연회
 - 믿는페미, 불꽃페미액션, 나쁜페미니스트, 광주여성민우회, 찍는페미 연대
- 페미활동가 워크샵
 - 범페미니네트워크 활동가와 문화기획달 활동가 간담회
 - "내 안의 여성혐오 고백하기"
 - 한국여성으로서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계획 공유

[범페미니네트워크] 대구 나쁜페미니스트, 부산 페미니네트워크, 서울 불꽃페미액션, 강남역10번출구 네 단위의 상시 네트워크 그룹입니다. 페미니즘 이슈와 문화, 담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페미니스트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을 통해 여성혐오적 문화와 가부장제 질서를 전국적으로 고발하고, 관련한 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여 여성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9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끝까지 옳고, 웃고, 같은 말을 하는 이 끝까지 않을 것 같은 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각자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평등을 위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 강하게 합니다. -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중

사업대상
일반시민
48,888명



2018분을 채운 성차별·성폭력 끝장 의지



- 2018분 이어말하기
 - 사전 조직 및 홍보: SNS를 통한 온라인 참가자 122명 신청, #미투 시민행동 연대 단체를 통한 조직
 -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 발언자 당 평균 약 10분 정도 발언
 - 사전 참가 및 현장 접수를 통한 이어말하기: 참여자 총 193명
 - 10대부터 70대까지 이주민, 청소년, 노동자, 활동가, 조력자, 학생, 기혼, 비혼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발언자들이 참여
 - 2018분 이어말하기 트위터 생중계
 - 누적 조회수 48,348회
- 부대행사: 너에게 보내는 경고장
 - 참여: 300건
 - 2018분 이어말하기 진행동안 #미투 #위드유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대자보 작성 게시
 -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 진행

성폭력은 몇몇의 나쁜 사람에게 의한 잘못이 아닌 차별적 문화의 결과!



- 성차별·성폭력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산물
- 성차별·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선언

전북여성단체연합

#미투(MeToo)를 넘어 #위드유(WithYou) 성평등한 사회로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62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가해와 피해, 갑과 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있는 지금 그곳은 어떠한가. 혹 당신은 어떠한가, 어떠한가. 투쟁과 저항은 의 부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일상에서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과 연결해 실천해야 한다. - 노현정 사무처장



사업대상
시민, 여성, 지역대학 학생 등
1,950명



성차별·성폭력 끝장내자!



- 517 젠더폭력 끝장집회 “나는 너다, 우리가 바꾸자”
 - 성소수자 혐오, 517 강남역, 미투/위드유 발언, 언니들의 병원놀이 마당극, 노래공연, 거리행진
-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 미투 가해자 처벌, 낙태죄, 불법촬영 등 관련 발언, 퍼포먼스, 노래 공연, 행진
 -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쉽게 고발하지 못했던 원인과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여론 확장
- 미투캠페인
 - 전북대, 전주대 미투 알림, 가해자 처벌 및 대학의 변화 촉구 (2018년 5월 2일~3일/5월 8일~9일)
 - 전북지역 내 미투운동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여론 확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일하는 여성들의 #미투가 말하는 것들> 집담회 개최
 -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일하는 여성들에게 벌어지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 모든 폭력 근절
- <대학 내 성폭력·인권기구의 발전방향을 위한 포럼> 개최

한국여성의전화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로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해 약 9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미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고 당신들도 함께할 수 있다. 당신들 중에 아직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외쳤던 것 같다. 길에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몇몇 분들은 박수쳐주시고 응원해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행렬을 돌 때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서 행렬이 끝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 왔을 때 처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 EXY 행사참여자



사업대상
일반시민
6,0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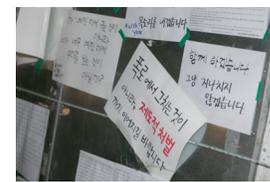


세상에 던지고 싶은, 아직 못다한 이야기



-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및 행진
 - 발언자 13명, 행진 참여 1,200여 명
 - 트위터 9회 페이스북 3회 등 SNS 실시간 방송 시청자 3,000여 명
- 부대행사: 부스 진행
 - #MeToo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 온-오프라인 광고 게재를 위한 개인/조직별 연대선언, 모금 진행
 - #MeToo, #WithYou 피켓 만들기
 - 개인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피켓 제작
 - 여성의 삶을 바꾸는 10차 개인 100만인 선언-성차별해소를위한여성개헌행동
 - 성평등 개헌을 요구하는 개인/조직별 연대선언 진행
 - 한국여성의 화 곁에-한국여성의전화
 - 이혼과정 중 가정폭력 가해 남편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및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서명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 #MeToo 연대의 고리 배포
 - #WithYou 굿즈: #MeToo에 함께한다는 메시지
 - #MeToo 지지 손글씨 인증샷 찍기-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폭력은 성차별에 기인한 것!



- #MeToo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통해 한국사회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성차별·성폭력을 드러냄
- 2차 피해와 백래시에 대한 강력한 제도의 상징으로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미투 퍼포먼스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본 사업은 2017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95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이 서로가 가진 생각이 차이를 좁히고 폭넓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기획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에게도 유의미했을 뿐 아니라, 각 영역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확산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도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미투가 지겹다”고, “이제 미투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바뀔 때까지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미투 퍼포먼스는 앞으로도 그 이미지와 영상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결국 이 사회를 바꾸어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예리 활동가

사업대상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자
218명



2018년을 기억하는 218명 갇혔던 몸들의 행진!



- 퍼포먼스 기획팀 운영 홍보
 - 기획회의, 연출가 미팅 등 11회 개최, 7인 참여
- 2018 광장액션퍼포먼스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218명 참석
 - 중요 일대를 시민들과 함께 침묵행진, 퍼포먼스 진행
 - 말들의 장례식(침묵행진)
 - 검은 장막 걷어내기(검은천 벗기)
 - 검은 말 부수기(폼보드 부수기)
 - 현수막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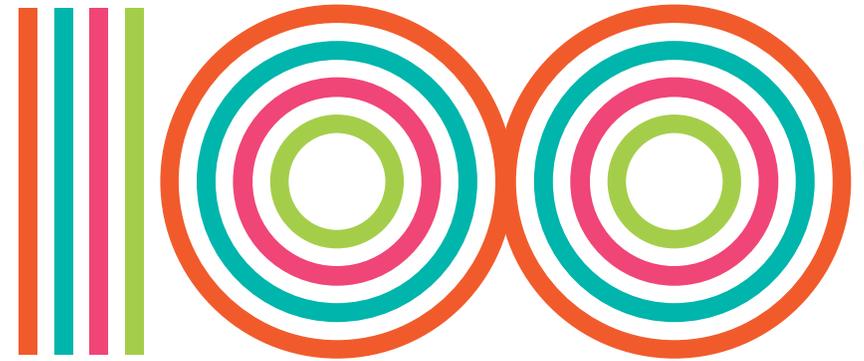
미투는 세상을 부수는 말, 미투는 세상을 다시 세울 말들!



-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차별·성희롱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미투운동의 메시지 전달 위한 저항적 이미지 구현
 - 여성문화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대중인식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변화 촉구
 - 2018년 상징하는 218명 참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구현
 - 미투퍼포먼스는 미투운동을 통해 이어진 말하기들이 모여 한국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화하여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함



Doing Good! Giving Good!
딸들에게 희망을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진행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금 캠페인입니다.

구성된 기부금은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기본인권보장, 여성임파워먼트,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에 쓰입니다.

2018년 지원 기준 4개 부문 / 52개 사업 109,941명 / 2,582,225,700원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의 변화
433,085,350원
92,201명



여성기본 인권보장
321,140,350원
10,539명



여성 임파워먼트
1,083,000,000원
6,765명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
745,000,000원
436명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relay
이메일 womenfund@womenfund.or.kr
전화 02-336-6463 팩스 02-336-6459

후원계좌(예금주 : 한국여성재단)
국민 079801-04-001536
농협 1279-01-000251

100인 기부릴레이 기간 중 특별 홈페이지(www.womenfund.or.kr/relay)를 통해 이کم이별 주자 현황과 완주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2018 성평등사회조성사업 FINAL REPORT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el 02-336-6364 Fax 02-336-6459 E-mail womenfund@womenfund.or.kr
www.womenfund.or.kr